

# 教育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役割에 대한 小考

朴 有 鳳

## 目 次

- |                       |                  |
|-----------------------|------------------|
| 1. 序                  | 4. 미디어의 應用과 研究課題 |
| 2. 커뮤니케이션學과 教育과의 聯關   | 5. 結 語           |
| 3. 미디어를 통한 教育的 期待와 實際 |                  |

## 1. 序

커뮤니케이션 現象은 어떤 形態로든 教育行爲보다 훨씬 앞서서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實驗性을 띠고 教育 그 자체에 適用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보겠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倫理學의 테두리에서 育成하고 주입시키는 權威主義的 教育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經驗的이고 實驗的인 心理學의 影響을 받으면서 教育革命을 이룬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心理學도 그 본격적인 契도를 1879년 분트(Wundt)가 라이프찌히大學에 實驗室을 두고 哲學의 領域으로부터 獨立하던 때<sup>1)</sup>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의 實驗의 活用이란 그 후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以前에도 教育이란 根本적으로 印刷媒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成長期의 人間에게 보다 革新的인 方法으로 個性을 形成시킨 事件은 電波미디어의 發明과 適用임을 否認할 수도 없다.

그것은 완만하고 傳統的인 意識形成의 테두리를 깨고 目標과 方法과 機能領域을 擴大함으로써 市民社會 또는 産業社會의 形成을 촉진하게 되었다.

本稿는 바로 이러한 過程에서의 매스 미디어와 教育의 關係를 검토하고 펠트만(Erich Feldmann)이 主張한 매스 미디어와 教育에 관한 몇가지 問題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教育學쪽에서 본다면 Schuyten, Binet, Lay, Meumann, Claparéele, Piaget 등이<sup>2)</sup> 實驗的인 研究에 그 나름대로 成功하여 發展模型을 設定해 놓았으나 커뮤니케이션學이 여기에 應用되기까지는 상당한 時日을 要하게 되었다.

다만 「말」 그 자체를 活用한 教育의 局面은 구태여 修辭學을 들추지 않더라도 中世以前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만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活用과 效果가 組織적으로 檢討되지 않은 狀態에서의 일인만큼 커뮤니케이션學의 使用 또는 援用이라는 意味와는 다르다고

1) 関榮順, 發達心理學, 教育出版社, 1957, S.13.

2) Erich Feldmann, Theorie der Massen-medien(Ernst Reinhardt Verlag München), S. 209.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現代人에게 作用하는 미디어의 教育的 効能은 과연 어떤 方向으로 目標을 삼고 있으며 부딪친 장벽은 무엇인가. 푸블리찌스틱學에 있어서 하게만(Walter Hagemann)의 後繼者로 機能的 어프로치의 獨特한 論理를 展開한 펠트만(Erich Feldmann)의 미디어 教育論(Mediapädagogik)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커뮤니케이션學과 教育과의 聯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學이란 펠트만이 使用한 바 應用學問으로서의 概念을 表示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表示(Aussage)의 機能的 側面을 살피는 푸블리찌스틱學의 立場보다는 미디어와 教育의 聯關에 있어서는 「傳達」쪽에 치중하는 커뮤니케이션學에 기울어서 理論을 展開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새로운 매스 미디어가 發展되면서 생긴 大衆化 現象중에서 가장 빠르고 두드러진 것을 映畫로 보았다. 日常生活속에서 별도로 꾸며진 서사적이고 드라마적인 構成을 보면서 낯설은 現實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映畫館에서 體驗한 리얼리티를 점차 現實속에 投影에 가면서 變化를 맞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變化에 어린이와 젊은이 들이 끼여들게 됨으로써 그 시기에 벌써 새로운 教育的 要因을 發生시켰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經驗에의 參與가 危害의 可能性(Unter Gefährdung)<sup>4)</sup> 밑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現實로부터 一時的 逃避구실을 마련해 주는 劇場에서의 映畫가 教育이나 순진한 情報獲得의 기회가 되는 일은 지극히 드물게 되었다는 점<sup>5)</sup>은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一次大戰 以後 發展하기 시작한 라디오 電波가 一般의인 使用段階로 들어서자 家族構成에서 어린이들의 連繫性을 크게 변혁시켰고 學校放送의 도입은 學術的 實驗을 토대로 초보적이고 理解를 돕는 教師의 役割을 立證하게 되었다.

결국 미디어를 통해 經驗한 “第二의 世界(Zweite Welt)”<sup>6)</sup>는 放送의 시작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教育的 目標에 專門으로 援用이 되게 되었다.

이미 1927년에 組織을 정비하고 放送의 目標을 情報傳達, 教育 그리고 娛樂이라고 못박아 커뮤니케이션史의 過程表를 세운<sup>7)</sup> BBC도 벌써 그 以前인 1924년에 學校放送을 實施한

3) Erich Feldmann, a. a. O. S. 215~217.

4) " " S. 210.

5) G. Maletzke, 매스컴心理學(朴有鳳 金鎮洪 譯 法文社 1976), S. 236.

6) Feldmann은 media를 통한 教育, 특히 放送을 통한 教育에서 “第二의 世界(Zweite Welt)”에서의 경험을 “二次의 經驗(Sekundäre Erfahrung)”으로 정의했고 주어지는 內容의 特徵을 “中間學年의 經驗(tertiäre Erfahrung)”으로 규정했다.

7) BBC Handbook 1973, “A Profile of fifty years,” S. 15.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분명히 커뮤니케이션學的 援用임에도 불구하고 克服하기 어려운 難題들은 여전히 남아서 教育과의 理想的 聯關에 많은 研究課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도 機械的인 스피커를 통한 「말」만의 傳達이 放送의 要求하는 바인 集中的 聽取를 可能하게 하느냐의 本質的인 問題도 오직 提起만 되어있을 뿐이고 新통한 指針이나 結論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受容者의 心理的인 分析과 構成된 內容의 傳達過程에서 오는 制約條件이 分明하게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미디어가 教育的으로 使用될 때 이른바 中間층의 “第三學級的 經驗(teritiäre Erfahrung)”이 등장하고 이것을 發信者의 言語表現內容의 基準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물론 教育이라는 말도 미디어와 關聯지어 생각할 때 包括的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概念이 지극히 모호해지므로 一定한 對象과 時間과 內容, 目標를 미리 밝히는 組織的인 것이어야 하며<sup>8)</sup> 學校放送이 될 때는 그 限界가 더욱 鮮明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라디오를 통한 教育機能을 생각한다면 前述한 「聽取力의 集中」이라는 問題 外에도 라디오의 教師로서의 機能이 問題가 되어있다.

그러나 30年代를 基點으로 텔레비전이 發展하기 前까지는 對話의 口頭交換(mündlichen Austausch des Gesprächs)<sup>9)</sup>이 오로지 言語學이라는 유일하고 固有한 테두리 안에서만 取扱對象으로 存在했으나, 커뮤니케이션學은 이것을 보다 實驗的이고 經驗的인 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왜냐하면 放送을 통해 들리는 「말」은 그 자체로써 영향력의 限界를 들어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聽取對象을 劃一的으로 밖에는 對할 수 없는 限界가 그것이다.

여기에 텔레비전이 등장함으로써 앞의 問題를 體系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父母의 統制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肯定的이든 否定的이든 그性向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호대로 選擇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經驗과 教養의 價値設定이 自意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sup>10)</sup>라는 펠트만의 진단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그 밖에도 이 媒體의 出現과 함께 지적되어온 一般的인 단점, 이를테면 感受性的의 異狀發展이나, 知識의 體系化에 妨害가 된다든지, 不必要한 早熟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결함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것이 지나는 教育과 教養의 가공할 힘도 認定되어 教師나 教育者는 물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學者들도 學校텔레비전放送의 使用과 效果에 對한 研究課題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電波미디어의 擴散으로 人間의 存在樣相이 本質的으로 변모되

8) 金圭, 放送媒體論(法文社 1976), S. 207.

9) E. Feldmann, a. a. O. S. 210.

10) " " S. 211.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視覺的 經驗을 토대로 하는 文化體系의 변천은 보다 平均化한 第二의 世界(Zweite Welt), 人爲的이고 技術이 創造하는 세계를 두드러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순서로 밀어 닥치는 情報의 洪水는 이른바 “知覺의 過剩(Hypertropie von Perzeption)”<sup>11)</sup>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思考範圍의 秩序라는 점에선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다만 現代的 意味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現象은 어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서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實驗心理學과 教育學과의 聯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人間發展의 要因으로 研究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까지 매스 미디어는 文化形成要因으로만 해석되고 규명되어 온 까닭에 教育學과의 연관에 있어서는 너무 오랫동안 教授法上的 편의를 위한 도구나 教養을 위한 技術的인 補助手段 정도로 利用되어 왔다는 點을 否認하기 어렵다.

즉 教案에 부수되는 視聽覺資料정도의 機能을 지녀온 것이다. 그러다가 새로운 매스 미디어, 텔레비전의 發展이 현저해지자 統一된 原理와 方法및 組織의 改善下에 실시되는 미디어教育學(mediapädagogik)의 必要性을 나타내었다.

비록 미디어 그것 자체는 成人들의 活用領域內에서 運用되고 또 進展되는 것이긴 하나 집에서나 學校에서나 꼭 같이 새로운 世界를 創出해 보여주고 이것은 同時에 成長期에 있는 사람들에게 創造의 欲望을 불러 일으키고 새지식에 대한 渴望을 한층 높여 주었으며 人生의 目標와 價值觀形成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디어라는, 人間이 創造해서 만든 도구는 外界의 現象을 直接 體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再生産되는, 人爲的인 “第二의 世界”이므로 그 教育的 活用の 組織性은 한층 더 不可缺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神이 創造한 實際存在속에서 思考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간접적으로 創造한 世界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價值變動의 變數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는 단순한 補助資料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가 커다란 部分으로써 教育體系 속 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 이 때 주지하는 바 몇가지 問題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펠트만이指摘한 「기계를 통한 말」에 대한 集中力問題 의에도 教育, 또는 教育學이 지녀온 傳統性과의 對立인 것이다.

즉 일정한 權威維持를 前提로 成立되어 왔던 教育의 場에 미디어의 도입은 그 論理의 有益性과는 無關하게 消極的이거나 오히려 排他的으로 받아 들여질 可能性도 지녔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父母나 教師등 傳統的 教育主體의 弱화를 招來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活用的 積極성을 잃어버리는 例가 가끔 있다는 것이다.

11) E. Feldmann, a.a. O. S. 221.

그러니까 미디어는 그 자체의 娛樂的 利用을 기대하는 習性 外에도 古典的이고 哲學的인 教育傳統의 挑戰아래서 教育機能을 발휘해야 하는 制約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 3. 미디어를 통한 教育的 기대와 實際

바로 이런점은 칼라 텔레비전이 생긴 이후 독일의 Hans-Bredow研究所가 國民學校聯合會와 共同으로 實施한 調査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즉 여기서 제시된 設問인 “텔레비전은 오늘날 人間生活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신 생각엔 이 媒體의 좋은점(長點)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首位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배울점이 많고 教養的이며 視界를 넓혀준다고 指摘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의 28.6%였다.

빠른 情報과 손쉽게 배울점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24.7%, 그리고 세번째로 娛樂과 기본 전환을 제공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項目은 19.6%였다. 다음에 그것이 生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라디오나 新聞보다 生生하게 느껴진다는 지적은 5.5%에 不過했다.

그리고 家族을 집에 모아 함께있게 해준다는 것이 4.7%였다.

그밖에 프로그램의 固定性이나 政治的인 識見이나 積極성의 高취등이 거론되었다.

放送媒體에 관한 한 世界的으로 권위있는 Hans-Bredow研究所가 集中的으로 實施한 이 調査中 上記設問에는 教養, 情報, 娛樂의 順으로 그 長點을 열거했으나 娛樂의 경우는 주로 病者, 年老者 그리고 基他的 理由로 自由時間을 많이 빼앗기는 人們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또한 政治的인 識見을 넓혀주고 積極적인 活動性을 자극한다는 對答은 1.4%에 不過해서 效果的인 教育媒體로서의 잠재력을 一次로 認定한 셈이 되었다.

다음에 이것을 反證할 수 있는 短點에 對한 危害가 가장 多數를 占해서 무려 27%를 나타냈다. 그 내용은 靑少年의 타락이나 犯罪物에 의한 刺戟, 模倣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조차 神通치가 없어서 成人用을 보느라 就寢時間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이었다.

다음은 健康에 미치는 害毒으로써 14.4%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은 神經症, 視力弱화, 두통, 就寢時間 침해등이었다.

또한 그다음으로 不過 8%가 지적을 한 家族關係인데 家族이 제대로 對話를 나눌 수가 없고 단란한 저녁時間을 즐기는데 매우 妨害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점은 家族이 모여서 좋다는 長點으로써의 지적보다는 월등높은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는 다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게되고 자주 미루게된다는 지적과 너무 많은 시간을 視聽하게되는 습관이 불게 된다는 점, 또는 獨立的인 自己意見을 喪失하고 텔레비

12) Hans Wenke, Fernsehen in Leben der Erwachsenen (Hans Bredow Inst. 1968), S. 81.

전이 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염려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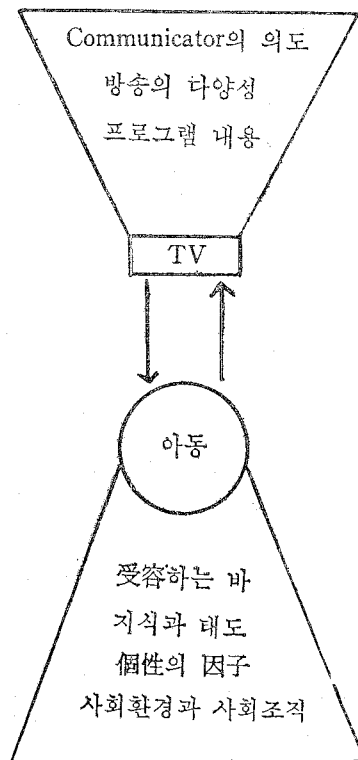
결국 短點에 對한 意見을 要約한대도 텔레비전은 어린이나 靑少年의 個性的 發展을 阻해한다는 결론으로 낙착지을수 있으며 同時에 이것은 “도덕적인 人稟(moralische Persönlichkeit)”에 否定的 影響을 준다는 意味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調査가 副次的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娛樂的인 利點을 強하게 反映한 應答群은 年齡이 높을수록 많아진데 比해 教育的 側面에서 短點을 지적한 사람은 男子보다는 女子쪽이 더 많고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 보다는 낮은 사람 쪽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이런 現象은 判別力과 自制力을 더 많이 지녔을 識者층 보다는 스스로가 받는 影響력을 감안하여 學力이 낮은쪽이 보다 높은 教育的인 危害意識을 表示했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1963년 美國은 텔레비전과 어린이의 문제를 研究하기 위한 研究委員會를 召集하여 討議의 모델로 텔레비전과 어린이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즉 이 表에서 나타난대로 檢討한다면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一次的으로



13) James D. Halloran, Wirkungen des Fernsehens (Hans Bredow Inst. 1966), S. 57.

프로그램 內容이지만 그뒤에 함께 이해되어야 할 多樣性이나 Communicator의 意圖는 그냥 묻혀 버릴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즉 上記한 諸要素가 서로 聯關을 갖고 有機的으로 受容되지 않는다면 어린이가 받아들인 결과에서도 지극히 表面的이고 단순한 知識과 態度에 그칠뿐 個性을 形成하는 根本的인 要因들이나 社會環境을 전체로 理解하는 局面들은 서로 斷切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놓고 一次的으로 염려하게 되는 教育的 危害可能性은 조금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委員會<sup>14)</sup>는 우선 放送內容에 對한 어린이들의 受容過程 및 經驗의 組織에 對한 의문을 前提로 출발하게 되었다.

즉 어린이들이 一次的으로 同一視하는 內容을 규명하고 필름이나 텔레비전의 表示(Aussage)를 받아들이는 모양을 組織的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疑問點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1. 刺戟을 받거나 관심을 끄는 要素
2. 注意를 환기시키는 것
3. 지루하게 하는 것과 실제로 정성들여 보는것
4. 어떤 特性을 同一視하게 되는가 즉 年齡과 性과 個性에 따라 두드러진 關係를 갖는 同一視의 類型(Typologien der Identifikation)이 存在하는가?
5. 眞實이라고 느끼는 것과 架空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것인가? 또 그 시기의 生活經驗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區別해 내는가?  
形態나 內容의 變更에 따라 받는 영향은 어떠한가?
6. 距離가 있는 Realität와 Irrealität를 어떻게 判別 하는가?
7. 受容에 있어 “社會的인 接近(Sozialnahe)”과 社會的인 距離(Sozialferne)라는 개념을 어떻게 區別 하는가?

受容과정에서의 이와같은 研究테마의 選定은 지극히 基本的인 事項으로써 그 解答이 結論으로 導出되지 못한점으로 봐서 放送미디어의 教育에의 活用은 사실상 많은 研究課題를 提示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上記한 研究가 1924년 以來 教育放送(學校放送)을 실시해오고 1930년에는 教育界 重鎮들로 하여금 學校放送中央審議委員會(School Broadcasting Council for the United Kingdom)<sup>15)</sup>를 구성하여 편성제작을 할수 있는 教科範圍와 방향을 정해서 세계에서 손꼽는 良質의 教育放送을 하는 英國의 경우이고 보면 Feldmann이 지적한 “二次的 經驗” 또는 “平均的 經驗”의 理想的의 傳達은 계속해서 과제로 남는 셈이 된다.

14) U.S.A. Komitee Zur Erforschung des Problem Kreises Fernsehen und Kinder. 이 위원회는 1963년 英國 內務省이 주동이 되어 구성한 텔레비전 研究委員會로 18개의 分科로 주로 텔레비전과 青少年의 문제를 分析했는데 社會學者 James D. Halloran에 의해 報告書가 정리되어 텔레비전 全盛期의 유럽과 美國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15) 李恒儀, 放送教育論(悅話堂 1976), S. 167.

#### 4. 미디어의 應用과 研究課題

원래 교육학자로 出發한 Feldmann이 푸브리찌스틱을 研究하고, 특히 그의 본래의 專功을 참작하여 매스 미디어와 教育分野의 理論的 連結을 疎한 것은 上述한 바와 같으나 실제 獨逸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한 教育은 지극히 微弱한 상태라 하겠다.

그 理由는 學者들의 理論展開와는 달리 教育的 固定觀念이 媒體를 통한 教育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sup>16)</sup> 州마다 약간씩 다른 放送局組織, 學校制度를 갖고 있어서 英國의 公開大學(Open University)와 같은 一絲不亂하고 차분한 放送教育體制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라디오의 경우는 좀 달라서 各州마다 3개의 프로그램중 적절한 것을 골라 충실한 學校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충실하다고 표현된 것은 學校放送의 담당자는 制度的으로 一線學校와 聯關을 갖고 直接 一定한 學校時間을 擔當한다든지, 學校內에 설치된 研究, 分析機構의 종사원을 兼한다.

그리고 對象과 目標가 뚜렷한 學校放送과는 性格이 약간 다르지만 一般教養 내지 全體的인 教育的 側面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商業性으로 인해 質의 低下를 招來할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強調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소위 公法上的의 機構(offentliche-rechtliche Anstalt)로서의 利點을 살릴 때 教養과 教育的 不足으로 因해 받는 지탄은 그만큼 解消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가장 최근에 설립되어 制度上, 또는 概念上 放送組織의 하나의 典型을 제시하는 一적어도 獨逸內에서는— ZDF(Zweite Deutsche Fernsehen—독일 第二 텔레비전)의 放送方針에도 천명되어 있다고 보겠다.<sup>17)</sup>

全文 6章의 이 方針은

1. 人間的 尊嚴성과 眞實성의 보호
2. 家庭과 靑少年 보호
3. 政治的인 原則
4. 國外政治문제—東獨 및 베르린
5. 宗教的인 문제
6. 道義的 價値規範

으로 要約되고 있다.

16) 독일은 教育概念을 教師의 道義的, 人間的 引道에 最優先의 比중을 두어 최종적인 졸업사정승인 權을 校牧이 갖는 곳이 많다.

17) 文公部刊, 外國放送關係 法規 및 現況(1970), S. 162.



여기에서 제 2章 家庭과 靑少年 保護의 내용을 부연한다면

- ① 프로그램은 연령, 성별, 및 교양과 성숙도가 틀린 가정집단에서 보고 듣는다는 점
- ② 포괄적인 情報과 흥미있는 對話를 제공해야하는 한편 批判精神을 고무해야 하고 自活力 함양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
- ③ 結婚과 家庭의 혼란이 正常的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
- ④ 兒童과 靑少年들에게는 적합치 못한 방송은 이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

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大原則이나 強調點이 視聽率競爭이나 商業性의 영향을 벗어난 정상적인 公營制度속에서 運營될 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에 대한 教育的인 기대가 二重 三重으로 필요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통한 學校放送은 아홉개 州가 전부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에른 방송(München)정도가 教育者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고 있다.

물론 그 結果는 지극히 肯定的인 것어서 第三放送을 통해 이를 실시하는 州가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München에 있는 靑少年教育放送研究所(Internationales Zentralinstitut für das Jugend und Bildungsfernsehen)는 教育과 관련된 Mediasystem의 發展을 모색하여 미디어 응용의 概念上의 圖式을 發表한 바도 있다.<sup>18)</sup>

이에 의하면 미디어 應用의 첫 단계는 教養教育政策의 基礎化에서 시작하여 要請되는 미디어의 特性을 고려하고, 다음에 選擇된 미디어의 評價裝置가 있어야하며, 技術的인 준비라든지 스태프의 訓練은 그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의 特性과 評價, 修正은 중간단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聯關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이 特性을 파악하고 評價하는 過程에는 受容者의 여러 制限的인 條件을 해결하는 標準設定의 階段을 挿入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時間, 經費, 그리고 失敗의 可能性까지를 고려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디어교육(Mediapädagogie)이 주는 影響에 관해 분명하게 결론을 낸 實證的 研究事例는 지극히 빈약하다.

거의 모든 나라의 放送法이 靑少年과 教育을 첫머리에 舉論했음에도 兒童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自主的인 活動을 하며 創造的인 要求에 따르게되는 例란 지극히 드물다고 보아서<sup>19)</sup> Maletzke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教育的인 可能性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몇몇의 調査를 인용했을 뿐이다.

이것은 兒童뿐 아니라 일반 成人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學習動機를 유발시키는

18) Inter Zentralinstitut, Media System in der Erwachsenenbildungs (1971. München), S, 25.

19) G. Maletzke, 매스 커뮤니케이션心理學 (朴有鳳, 金鎮洪 譯, 法文社, 1976), S. 252.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른 취미와 條件이 하나의 미디어를 手段으로 그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反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教養과 教育의 必要性을 切感하면 할 수록 그 普遍的 性向은 오히려 娛樂指向의 이어서 깊이를 지니는 커뮤니케이션의 內容으로부터는 차차 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觀點에서 미디어와 一般人的 教養的 접촉은 學校放送의 그것보다 훨씬 막연하고 어려운 것으로 認識되어 있다.

우리도 195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教育開發院內에 教育放送局을 두고 있으나 活動에 비해 그 成果가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매스커뮤니케이션이 本格的으로 限定된 教育分野에 도입된지 30年 가까이 되어 오지만 心理學이나 社會學과 밀접한 關係를 지니면서 커뮤니케이션學과의 分명한 關係를 정립하였느냐 하는 점에서는 역시 未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다만 “教育放送은 韓國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目的, 內容, 方法 等の 開發에 關한 調查研究와 그 成果의 補給活動을 爲해 放送媒體가 지니고 있는 特性和 利點을 教育에 계속 導入함으로써 우리나라 教育, 文化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教育放送의 目的을 밝힘으로써 媒體利用의 基本的이고 基礎的인 指針을 밝혀 놓고 있다.<sup>20)</sup>

그런데 放送媒體의 特性和 利點을 活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方針로서는

- ① 어려운 學習經驗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 ② 教育目標와 媒體特性이 잘 부합되는 內容을 선정하되 全教科, 全學年에 걸쳐 活用토록 하며,
- ③ 프로그램은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보충할 수 있는 性格으로 目標達成에 必要한 최적의 方法으로 개발한다<sup>21)</sup>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역시 全學年의 利用을 장려한 점은 그것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觀點에서 Feldmann의 “tertiäre Erfahrung”이 記述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겠다.

그 외는 선명한 教育目標에 비해 미디어 쪽은 長點만을 援用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느만큼의 心理的인 側面을 들어서 “……따라서 단조로운 ‘칠판’教育을 지양하고 多樣하고 生動感이 넘치는 방송매체를 教室에 도입함으로써 教育方法의 改善과 더불어 學習效果의 向上이 實現될 것이며……”<sup>22)</sup>라고 教育放送局 設置에 關한 案內文에서 밝히고 있다.

결국 교사의 전통적 수업활동에서 教材內容을 보충, 심화하는데 일단 최종적인 目標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分野로 있다. 放送大學, 또는 放送通信大

20) 教育開發院, 教育放送프로그램案內(1978).

21) 李恒儀, 教育放送프로그램案內(1978), 教育放送의 基本方針.

22) 李恒儀, 教育放送論에서 再引用(1978). S. 174.

學이 그것이다.

이것은 나라마다 각 각 지닌 사정에 의해 大學過程을 방송을 통해 受信케 하고 一定한 資格을 認定한다는 點에서 가장 積極적이고 補償이 따르는 教育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겠는데, 이 媒體에 기대하는 청취자의 여론은 반드시 청취후 一定한 資格取得에 그치는게 아니라 는 點에서 커뮤니케이션學 쪽으로서는 관심을 기울일 만한 例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가령 텔레비전에 의한 教育이 低學年에서 가장 效果가 있었다고 하는 調査들에 비해 放送通信大學은 그 方面에 대하여 흥미를 가졌거나 教養을 기대하는 一般청취자에 의해서도 受容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變化하는 各種 社會的 추세에 發信者나 受容者 共히 빠르게 對處할 수 있다는 長點을 지녔기 때문이다.

더구나 意圖的인 教育放送이 아닌 一般教養物의 경우 普遍的인 청취자의 기호를 意識하면서 비교적 가볍고 부담이 적은 쪽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發信者가 속한 集團의 共通的인 意圖傳達일 경우가 있어서 이런때 생기는 發信者의 不完全한 共感이 역시 不完全하게 受容者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지극히 消極的이거나 애매모호한 教養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放送大學은 최소한 그런 點에서는 비교적 個性을 지닌 內容일 수가 있고, 만족할 深度를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一般娛樂物과 섞여서 傳達되는 社會教養의 傳達 및 受容樣式보다는 보다 意圖的인 教育과의 關係를 살핀 것이기 때문에 이 社會教養 문제는 論述을 피하려 한다.

## 5. 結 語

지금까지 本稿는 Erich Feldmann의 理論을 前提로 해서 커뮤니케이션學과 教育과의 關係를 究明해 보았다.

그러나 그 必要성과 必然성은 적지 않게 強調되어 있는 반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한 學習效果의 測定이라든지 知識의 유지상태 등은 별로 현저한 연구와 응용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매스미디어, 특히 放送을 통해서는 反復效果가 현저하다는 것을 분명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가 人間에게 미치는 長期的 영향이나 그것으로 인한 教育學과의 연계방법도 詳述할 만한 研究가 진척되지 못하였다.

결국 Feldmann은 실험심리학이나 深層心理學이 개척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學과 教育學의 研究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情報受容의 認識方法이 實驗教育學의 發展 속에 분명하게 자리잡지 못하고서는 教育을 위

한 效果的인 자극이나 상호보완은 어렵다고 보았다.

또 그는 人間이 자기존재의 根源的인 不安으로부터 解放되어 자기나름의 進路를 따라 前進하고 發展하는 가장 큰 모티브는 어디까지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心理學的이거나 社會學的으로 규명된 커뮤니케이션學이 아니고서는 概念 형성과 有益한 思考의 能力이 생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sup>23)</sup>

모름지기 教育學이란 것도 發展하면 할수록 人間의 바람직하지 않은 힘도 同時에 發展한다는 前提가 必要한 것이며 매스미디어의 誤用은 人間을 破滅로 이끌거나 存在秩序 자체를 혼든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해 준 바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는 그 出發段階의 單純하고 건설적인 機能에서 점차 발전하여 社會的 변화는 물론 人間의 基存樣相조차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教育, 教養的인 기능이 강조되고 응용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娛樂的 측면이나 商業的인 전달기능의 기술적 발전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各方面의 기능을 深化시키는 데는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비록 미디어의 教育的 活用과 관련해서 調查研究가 수 없이 행해지고 그 결과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것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미디어를 통해서 變容된 態度가 얼마만큼 送信者의 意圖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데이타는 그때 그때 나오긴 했지만 정신적인 刺戟과 고무의 수단으로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 역할과 實驗教育學과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學이 이루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23) Maletzke, a. a. O. S. 260.